

Contents



통계로 보는 국제물류

1. 상위 글로벌 물류 3사, 84% 택배시장 점유



이슈페이퍼

1. 유라시아 거점국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쟁과 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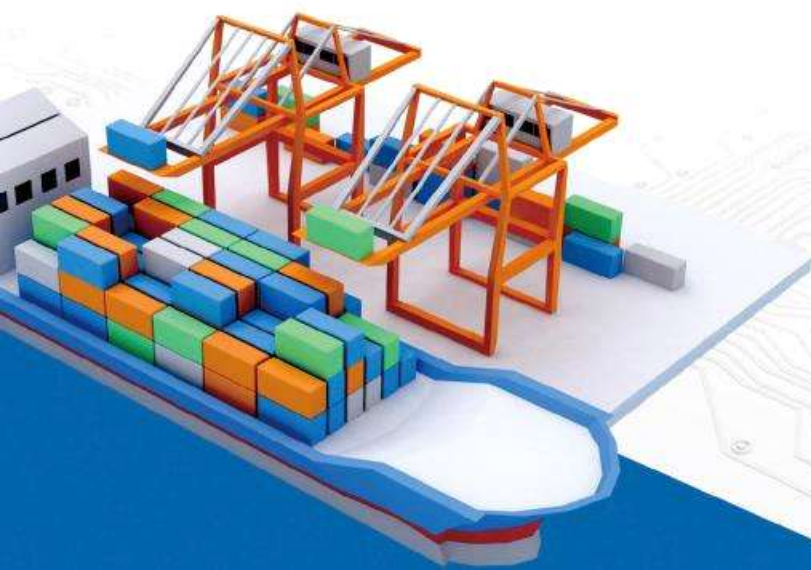
물류정책·산업동향

1. PriestmanGoode, 도심형 드론 컨셉 발표
2. 베라크루즈 신항만, 6월 개장 예정
3. Flipkart, 인도 벵골에 메가 물류 허브 건설 예정
4. Navis, 항만자동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5. 라오닝성 항만 자원 통합 가속화
6. 우버 자율주행 테스트 차량, 사망사고로 전면 운행 중단

명사 스피치

“새로운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있는 기술의 미래와 함께, 창조적으로 기존 산업의 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스타트업의 동향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 전반의 기술적 동향과 사업 환경, 그리고 변화의 추세선 속에서 기존 물류 산업의 기회와 가능성을 조망해 볼 수 있습니다.”

민정웅 인하대학교 물류전문대학원 교수
(2018. 3. 14. / Chief Logistics Offic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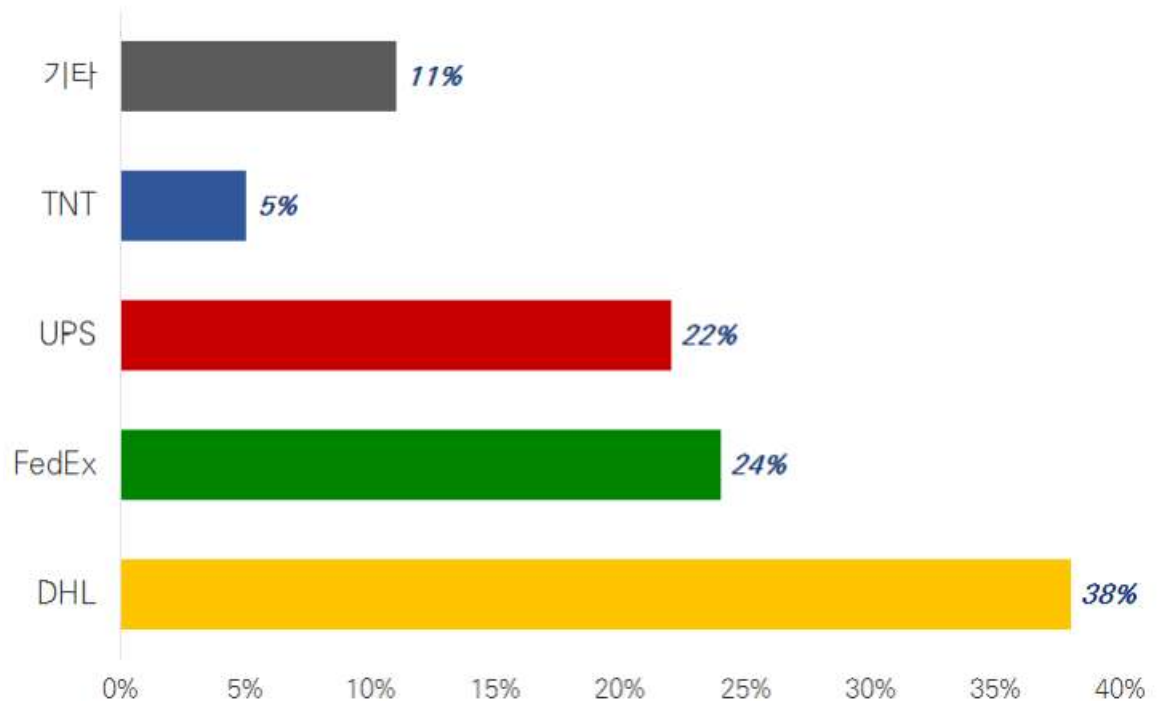




통계로 보는 국제물류

상위 글로벌 물류 3사, 84% 택배시장 점유

세계 택배시장 점유율 현황(2017)



자료 : www.statista.com

- 주요 글로벌 물류기업이 전 세계 택배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7년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독일의 DHL사가 38%, 미국의 FedEx사와 UPS사가 각각 24%와 22%로, 이들 3개 기업이 전체 택배시장의 약 84%를 점유하고 있음
 - DHL, FedEx, UPS 등 주요 기업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1~2%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는 등 글로벌 3사의 영향력이 매우 높은 실정임
-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에 따라 택배시장 또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화물 추적 기술, 자동 분류 시스템 등으로 주요 글로벌 기업의 높은 시장점유율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참고자료 : www.statista.com/statistics/236309/market-share-of-global-express-industry/, 2018.03.26.

김동환 연구원

051-797-4913, kdong@km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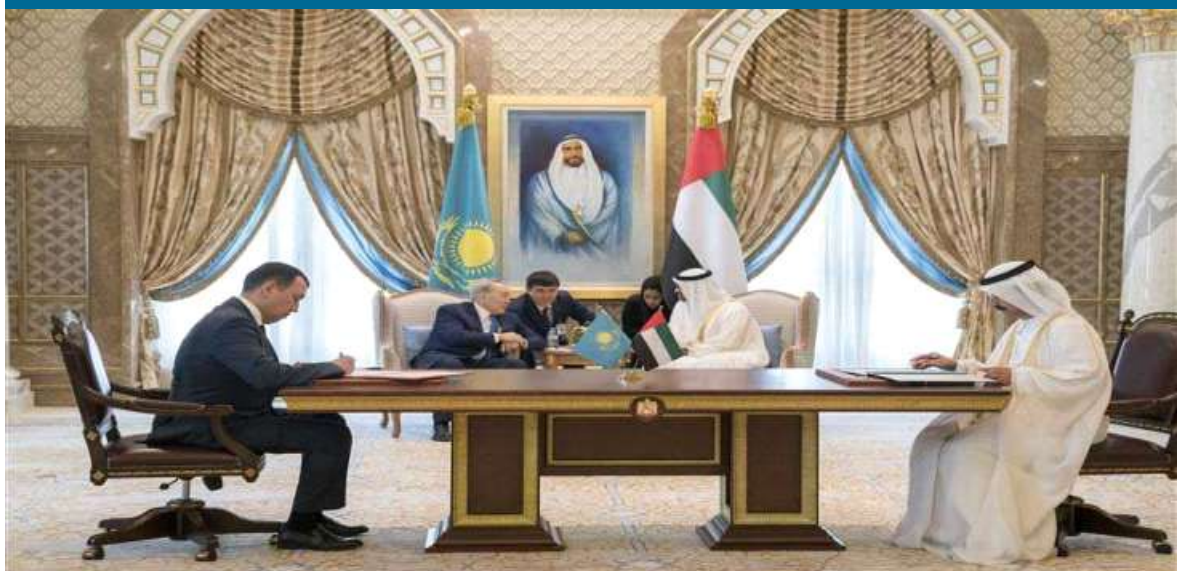


이슈페이퍼

유라시아 거점국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쟁과 협력

- 최근 카자흐스탄은 '국가발전전략 2050'을 통해 세계 경제 30대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국가발전전략 2050의 일환으로 2020년까지 누를리 졸(새로운 길)을 추진 중임
 - 카자흐스탄의 지경학적 위치를 이용해 물류 인프라를 개발하고 무역을 확대시키기 위한 것임
 - 특히 카자흐스탄은 중국과 송유관 및 가스관을 개통해 중·러 에너지 협력에서 중계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호르고스 자유무역지대는 유럽행(行) 물류거점으로 활용되고 있음
 - 또한 카자흐스탄은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으로서 러시아와 다각화적인 협력관계를 맺고 있으며, 육로국경 통과절차는 이미 간소화되어 EU 수준의 역내이동이 가능한 상태임
-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연초 국정연설에서 10대 주요 발전과제 중 하나로 운송물류 인프라 효율성 제고를 꼽았음
- 카자흐스탄 정부는 DP World와 특별경제구역의 지분 확보를 약속하는 협정서에 서명했음
 - 협정서에 따르면 DP World는 카스피 해에 위치한 화물 및 벌크 터미널인 악타우 특별경제구역과 호르고스 특별경제구역의 인수 및 관리에 대한 권한을 얻었음
 - DP World는 호르고스 특별경제구역의 51%, 악타우 특별경제구역의 49% 지분을 인수해 새로운 실크로드 (New Silk Road)를 통한 운송루트를 개발할 계획임

카자흐스탄과 DP World 협의서 서명



자료 : <http://www.arabianbusiness.com/transport/392683-dp-world-to-acquire-stakes-in-two-kazakhstan-special-economic-zones>

-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은 신년 교서에서 2018년 국가 슬로건을 ‘투르크메니스탄 - 위대한 실크로드의 심장’으로 지정함
 - 신공항 및 투르크메니스탄-아프가니스탄-타지키스탄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케르키-이맘나자르-아키나 구간 고속도로 건설 등 새로운 교통 인프라 구축을 통해 유라시아 물류거점국가로 부상하기 위해 노력 중임
- 2018년 3월 투르크메니스탄은 국제남북운송회랑(INSTC)에 참가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했음
 - 2016년 8월 러시아, 아제르바이잔, 이란 3국 정상회담에서 국제남북운송회랑 건설 프로젝트가 최종 합의된 이후 2018년 1월 인도에서 러시아로 첫 화물 운송을 실시했음
 - 국제남북운송회랑은 인도, 이란, 아제르바이잔, 러시아 등 북유럽과 동남아시아를 선박, 철도 및 도로를 통해 연결하는 약 7,200km 길이의 화물운송경로임
 - 국제남북운송회랑 회원국은 14개국으로 이란, 인도,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오만,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시리아, 우크라이나, 터키, 키르기즈 공화국, 불가리아(옵저버)임



자료 : International North-South Transport Corridor(INSTC) 공식사이트

- 쇼프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신(新)정부는 외환자유화, 과실 송금 원활화 등과 같은 조치를 설명하면서 개발정책을 적극 추진 중임
 - 지난 12월에 취임한 쇼프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2017-2021 우즈베키스탄 발전전략’을 승인하고 실행전담위원회를 설립했음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사업 추진을 위해 총 77억 달러(세계은행 30억 달러, 아시아개발은행 37억 달러, 이슬람개발은행 10억 달러) 규모의 다자개발은행 차관을 도입했음
 - 중국 또한 우즈베키스탄에 대규모 원조를 제공해 일대일로를 위해 적극 협력하고 있음



- 그 뿐만 아니라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러시아를 잇는 타쉬켄트-우르겐치-히부-누쿠스 노선을 개통했음
 - 이 노선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중부 크즐쿠모프 지역의 야금 제품이 주로 운송될 것으로 예상됨
 - 그 밖에도 우즈베키스탄은 제조업을 육성하고, 선진 첨단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해 나보이, 안그렌, 지장 등을 경제특구로 지정해 경제 분야의 개혁 및 개방을 추진하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개정된 경제특구법에 따라 법인세, 재산세, 인프라 개발세, 도로 펀드 지불세 등 에 해당하는 세제 혜택과 내각에 등록된 수입품 리스트에 의거 장비, 원자재, 예비부품, 국내 미생산 건설 자재에 대한 관세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음
- 유라시아 대륙의 통합이 속도를 내고 있음에 따라 역내 주요 거점국가가 되기 위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주도권 경쟁 시작됐음
 - 카자흐스탄은 '2050 국가발전 전략', 우즈베키스탄은 '2017-2021 국가발전전략 계획', 투르크메니스탄은 '2024 사회경제발전전략'을 통해 자체적으로 교통물류망 구축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을 뿐 아니라, AIIB, EDB(EAEU개발은행), SCO 등의 지원사업도 진행하고 있음
 - 2017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즈 공화국은 권위주의적 장기집권 체제에서 새로운 리더십으로 교체됨에 따라 개방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칠 것으로 예상됨

■ 참고자료 : kazakh-tv.kz, 2018.3.26. / tengrinews.kz, 2018.3.26. / malaysiandigest.com, 2018.3.26. / kursiv.kz, 2018.3.27. / abctv.kz/ru, 2018.3.26. arabianbusiness.com, 2018.3.26. / astanatimes.com, 2018.3.27.

김엄지 연구원

051-797-4776, umjikim@kmi.re.kr



물류정책·산업동향

PriestmanGoode, 도심형 드론 컨셉 발표

- 지난 3월 22일 런던의 디자인 회사인 PriestmanGoode는 드론 기반 도심형 운송 시스템 컨셉을 발표함
 - 홍콩 GREAT Festival에서 공개된 동영상에는 Dragonfly(잠자리, 이하 드론)라 불리는 수많은 드론이 홍콩 도심을 날아다니며 택배화물을 배달하는 모습이 포함
 - 드론의 충전 및 화물 유통 거점인 부유식 자율 이동 플랫폼(Floating Autonomous Mobile Platform, 이하 '이동 플랫폼')을 기점으로 드론들이 택배화물을 도심 내 빌딩으로 운송
 - 민들레 씨앗처럼 생긴 드론은 화물을 매달아 목적지에 배달하며, 특히 무거운 화물은 2대의 드론이 협업하여 운송
 - PriestmanGoode에 따르면 드론은 이동 플랫폼뿐만 아니라 빌딩 옆 또는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드론 도크(Drone Dock)에 착륙 및 충전할 수 있다고 함
- 드론은 도심에서 증가하고 있는 교통체증, 대기오염 등을 줄이는 새로운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함
 - Paul Priestman PriestmanGoode 회장은 "온라인 거래 증가로 인해 도심 내 배송차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교통체증 및 대기오염을 야기하고 있다"고 함
 - Dezeen의 창립자인 Marcus Fairs씨는 "드론은 도심에서 물건을 배달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이동, 빌딩의 건설방법, 나아가 도시 기능에도 혁신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함

PriestmanGoode의 도심형 드론 컨셉



자료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EZ4uczr19io>

■ 참고자료 : Porttechnology.org, PriestmanGoode Reveals Drone Delivery Future, 2018.3.23.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EZ4uczr19io>, 2018.3.23.

강무홍 전문연구원

051-797-4684, mkang@kmi.re.kr



베라크루즈 신항만, 6월 개장 예정

- 현재 멕시코 정부는 PNI(Programa Nacional de Infraestructura) 프로그램 하에 기존 항만들의 물동량을 두 배로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본 프로그램이 도입된 2012년의 총 물동량은 2억 6,000만 톤이었으나 현재는 4억 7,000만 톤으로 증가했음
 - 올 연말까지의 목표 물동량은 5억 2,000만 톤임
- 이 프로그램에 속해있는 프로젝트 중 가장 큰 프로젝트가 베라크루즈 신항만 건설 프로젝트임
- 현재 멕시코 베라크루즈(Veracruz) 신항만은 건설 중에 있으며, 계획대로 진행될 시 2년의 공사 기간이 끝나는 올 6월 말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임
 - 베라크루즈 항만은 멕시코 동안 대서양의 멕시코만에 위치해있으며, 본 신항만 건설을 위해 약 18억 달러(350억 페소)가 투입되었음
- 기존의 베라크루즈 항만은 1902년에 Porfirio Díaz 대통령에 의해 개장되었으며, 항만 확장 공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현재 신항만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음
 - 또한 이번 프로젝트에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긴 4.3km 방파제 건설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약 1억 6,000만 달러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짐
- 베라크루즈 항만청(Veracruz Port Authority)은 이번 신항만 건설을 통해 연간 처리 물동량을 기존 2,800만 톤에서 9,500만 톤까지 약 3배 이상 증가시킬 예정이라고 밝힘
-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예산 삭감으로 인해 자금 조달 모델이 변경된 바 있으며, 그 결과 투입된 예산의 대부분은 민간 부문 투자로 이루어짐
 - 멕시코 연방 정부 및 항만청에서는 총 예산의 1/5 수준인 70억 페소 정도만 지원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Hutchison Ports가 이번 프로젝트에 4억 5,000만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나타남
- 새로 개장될 신항만에는 5개의 터미널과 35개의 정박지가 건설될 예정임

■ 참고자료 : <http://www.portstrategy.com>, <https://mexiconewsdaily.com>, 2018.3.20.

이기열 전문연구위원

051-797-4670, kylee@kmi.re.kr

Flipkart, 인도 벵골에 메가 물류 허브 건설 예정

- 벵갈루루(Bengaluru)에 본사를 둔 거대 전자상거래 기업 Flipkart는 인도 서 벵골(West Bengal) 지역에 통합 물류 허브(Hub)를 건설하기 위해 약 600억 루피 이상을 투자할 계획임을 밝힘
 - 이번 프로젝트는 Flipkart가 벵갈루루 센터를 설립한 이후 발표한 가장 큰 규모의 프로젝트로서 콜카타(Kolkata) 인근에 건설될 예정임
 - 새로 건설될 물류 허브 센터는 인도 동부 및 동북부의 모든 주(State)를 수용할 예정이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약 5,000명 이상의 고용유발 효과를 동반할 것으로 기대됨
- Flipkart 부사장은 이미 첨단 물류 허브 건설을 위해 사전 단계에 착수한 상태이며,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투자될 정확한 금액은 공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언급함
 - 이번 허브 건설을 위해 Flipkart는 자체적으로 토지도 매입할 예정임
- 해당 프로젝트가 완공될 시 이는 인도 동부지역의 물류분야에서 전자상거래 회사가 단행한 가장 큰 규모의 투자가 될 것임
- Flipkart는 물류 허브 센터에 자동화 창고 및 지능형 운송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공급사슬 효율성 향상 및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 또한 Flipkart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기대되는 5,000명의 고용 창출 효과 외에도 트럭킹, 포워딩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간접적인 일자리도 약 1만 5,000개 이상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 콜카타는 인도 동부에서 가장 큰 도시로서 인프라와 운송 채널이 잘 발달되어 있어 물류 허브를 건설하기에 적합한 곳으로 평가되고 있음
- 이번 허브 건설 프로젝트의 1단계 완공까지는 18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상된 공급사슬 역량은 인도 동부지역의 물류비용을 절감시킴과 동시에 해당 전 지역의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고자료 : <https://timesofindia.indiatimes.com>, 2018.3.21.



Navis, 항만자동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 74% 응답자, 항만 경쟁력 유지 위해 자동화터미널 구축 필요 -

- Navis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글로벌 터미널 운영사의 74%(응답자)가 어떤 형태(완전, 반자동화 또는 프로세스의 자동화 등)의 자동화 터미널이든 향후 3~5년 내 터미널 경쟁력을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응답함
- 응답자는 아래와 같이 자동화 터미널 도입 가능성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 응답자의 20%는 이미 완전자동화 터미널 운영 업체이며, 13%는 완전자동화 터미널 도입을 검토 중임
 - 37%는 프로세스 부분에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40%는 이 옵션을 고려중임
 - 21%는 이미 터미널 내 자동화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24%는 자동화 장비 도입을 고려하고 있음
- 자동화 터미널 도입 또는 전환을 통해 얻는 혜택과 향후 도전과제는 다음과 같음
 - 자동화 터미널을 통해 얻는 이점은 운영의 안전성 향상(65%), 운영 통제 용이 및 일관성 유지 가능(62%), 운영비용 절감(58%), 운영 생산성 향상(53%) 등으로 나타남
 - 이러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투자비용(68%), 운영에 필요한 기술과 자원 부족(52%), 노동조합 문제(44%) 및 장기간의 도입 시간 필요(30%) 등의 이유로 자동화 터미널 도입을 유보하고 있다고 응답함
- 자동화 터미널에 대한 여러 가지 쟁점에도 불구하고 자동화 터미널을 도입하고자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은 잠재적인 투자수익률(ROI; Return of Investment)¹⁾로 조사되었으며, 향후 자동화 터미널은 보다 확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응답자의 30%는 자동화 터미널이 기존 생산성의 26~50% 향상가능, 29%는 16~25% 생산성 향상이 가능하다고 응답함
 - 또한 19%의 응답자는 자동화 터미널을 통해 운영비용을 50% 이상 절감할 수 있다고 했으며, 29%는 26~50%, 33%는 16~25% 절감이 가능하다고 응답함
- 이 조사는 75개 이상의 Navis 고객을 대상으로 자동화 터미널의 중요성, 자동화 터미널에 대한 인식, 혜택 및 향후 도전과제 등에 대한 견해를 물어 본 것으로 글로벌 터미널 운영사와 관련당사자의 자동화 터미널에 대한 변화를 모색하는데 의의가 있음
 - Navis에 따르면 현재 터미널 운영사들은 터미널 내 자동화 장비·프로세스 도입과 구축을 위한 최전선에 있으며, 향후 20년 이내 완전 자동화에 대한 가능성 뿐만 아니라 운송망 전체에서 자동화 실현이 가능하다고 확신하고 있음

■ 참고자료 : Hellenic Shipping News, 2018.3.16.

김보경 연구원

051-797-4674, kimb@kmi.re.kr

1) ROI(Return of Investment)는 투자대비 수익률을 의미함

랴오닝성 항만 자원 통합 가속화

- 중국 동북지역의 랴오닝성, 다롄시, 잉커우시 국자위(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랴오닝 동북아항운발전유한회사와 초상국그룹은 랴오닝성 항만 자원의 통·폐합, 지분 투자, 투자 유치, 공익적 자산 배분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협정을 체결함
 - 이 협정은 2017년 6월 랴오닝성 항만 통합과 관련해 다롄항, 진저우항, 잉커우항의 항만당국, 랴오닝성 정부와 초상국그룹이 체결한 항만합작기본협정 이후 진전된 협정 내용을 담고 있음
- 중국 동북지역 항만 통합계획은 랴오닝성 항만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진행될 계획이며, 첫 단계로 다롄항과 잉커우항의 통합이 추진되고, 향후 2단계로 단둥항, 후루다오항 등의 항만도 통합될 가능성이 높음
 - 동북 지역의 이러한 통합 흐름은 동북지역과 동북아 항만·해운 통합에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항공분야에도 통합을 고려 중인 것으로 보임
- 항만 자원 통합의 가속화는 올해 1월 랴오닝성교통운수협의회에서 제안됐고 소유권 개혁과 기타 항만과의 통합을 이룩해 연해항만의 경영 일체화와 다롄의 동북아국제항운센터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것임
 - 지방 양회의 랴오닝성 정부의 업무보고에서도 랴오닝성 항만그룹을 재조직해 연해항만통합과 항만경제권 건설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언급됨



자료 : 중국수운왕(www.zgsyb.com) 2018.03.22일자 기사

■ 참고자료 : shippingchina.com, 2018.3.21.

공영덕 연구원

051-797-4778, ydkong6053@kmi.re.kr

우버 자율주행 테스트 차량, 사망사고로 전면 운행 중단

- 애리조나 주의 템피에서 발생한 우버(Uber)의 자율주행 테스트 차량에 의한 보행자 사망사고로 인해 우버는 자율주행 차량 테스트를 전면 중단함
- 현지 경찰은 트위터를 통해 2018년 3월 18일 발생한 보행자와 차량의 충돌사고를 조사 중이며 이후 우버 차량과 여성 간의 "치명적인 사고"로 묘사된 내용을 업데이트함
- 보도에 따르면 승객 없이 안전장치가 장착된 우버의 자율주행 테스트 차량인 볼보(Volvo)는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를 인지하지 못하고 충돌한 것으로 밝혀짐
- 관련 법률 규제 기관과 기술을 담당하는 회사는 공공도로에서 자가 운전을 권장해 왔음
-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발달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고 풍족하게 할 수 있지만, 그 기술과 서비스는 안전이라는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범국가적 규제 방안이 시급함

우버의 자율주행 테스트 중인 볼보차량



자료 : www.porttechnology.org

■ 참고자료 : porttechnology.org, 2018.03.20.

김효재 연구원

051-797-4686, hj_kim@kmi.re.kr